

# “학교 통폐합 정책 지방소멸 쓰나미 초래”

## 정의당 전남도당, 작은 학교 폐교 인센티브 중단 촉구 전남교육청 인센티브 1천398억2천만원 전국 3위 해당

작은 학교를 폐교시키는 학교 통폐합 정책이 지방소멸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위드 시대 학교방역, 학습결손 등을 감안할 때 ‘작은 학교 살리기’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작은 학교 죽이기에 인센티브를 쥐어주고 전남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이 정책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작은 학교를 죽이는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

면 올해 5월 기준 228개 전국 지자체 중 36곳(15.8%)과 3천553개 읍·면·동 중 1천67곳(30%)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은 지자체 106곳(46.5%), 읍·면·동은 1천777곳(50%)으로 집계됐다”며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 중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구례군, 장진군, 장흥군, 진도군이 소멸 고위험지역(40.9%)으로 분류돼 전국평균보다 세배나 높은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자체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고 진단했다.

전남도당은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저출생과 지방 교육의 붕괴를 꼽는다. 이미 저출생 문제는 출생률 0.84로 OECD

국가 중 최저이고 전세계적으로도 출생률 1이하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막상 교육문제에 부딪혀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도당은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265개 학교가 통폐합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조2천447억8천만원을 받아갔다고 한다”며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2천667억8천만원)이며 전남은 1천398억2천만원으로 3위에 해당하고 통폐합 학교 수로는 37개교로 경북(57개교)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학교 통폐합 대상이 주로 작은 학교로 학교 폐교 시 학생과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끼친다는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과 학습

결손 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 만들기’ 또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한데 정부는 반대로 작은 학교 죽이기에 인센티브를 쥐어주고 전남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이 정책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당은 “신생아 출산이 줄어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은 교육청의 학교소멸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해 결국 지역소멸의 쓰나미를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 것”이라며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작은 학교 죽이기 정책인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교육청 또한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폐지와 함께 ‘작은 학교 만들기’ 및 ‘작은 학교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 서구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설치

광주 서구는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6개소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종이팩은 해외에서 100% 수입한 천연펄프로 제작되어 사용한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 처리 시 납킨이나 고급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과지 등과 함께 배출돼 저가제품으로 재활용되거나 매립·소각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사를 비롯한 양3동, 농성1동, 화정2동, 상무1동,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종이팩 수거함 6대를 설치했다.

주민 왕래가 잦은 곳에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해 직접 체험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참여를 이끌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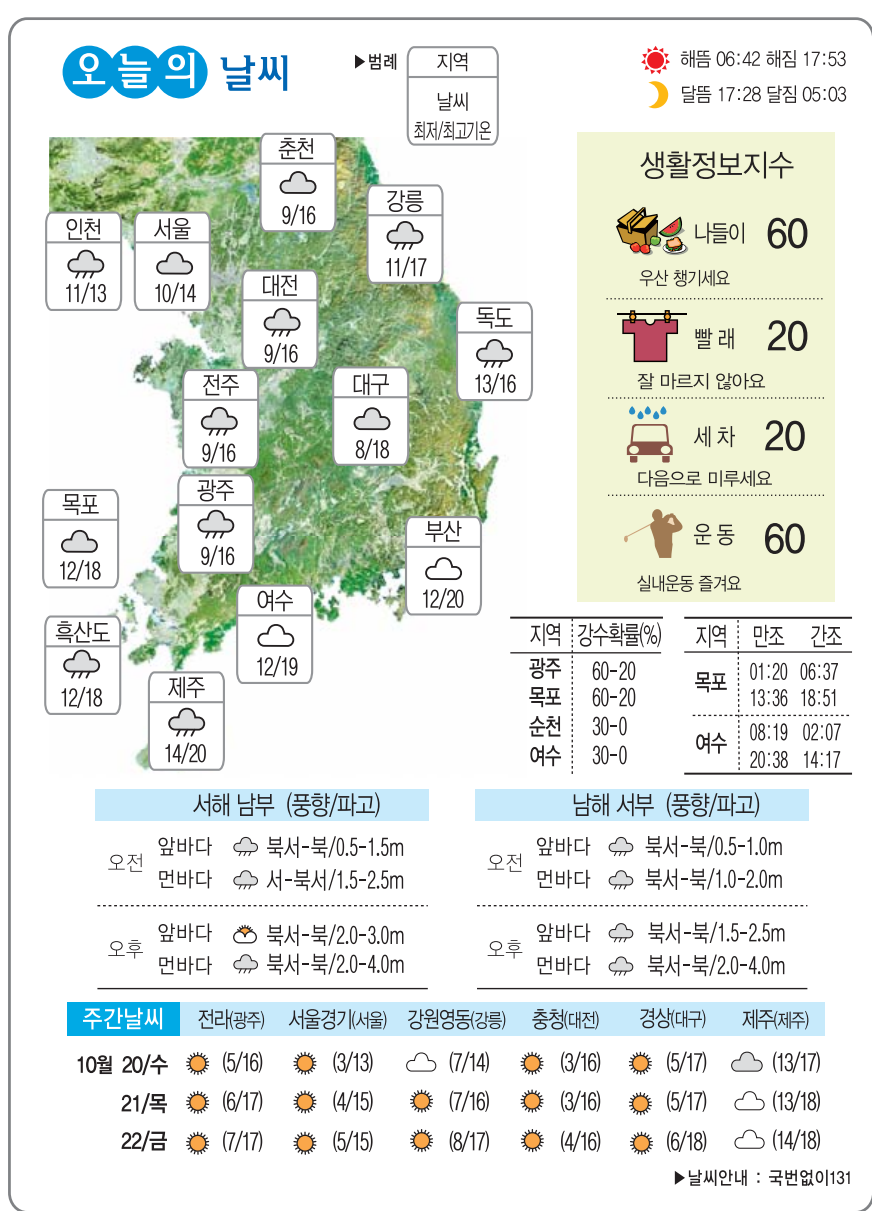
/안재영기자



선별진료소에 일찍 등장한 온열기

가을 속 ‘10월 한파’가 이어진 18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일찍 등장한 온열기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예리기자



## 예술관광 거점 ‘동구예술여행센터’ 개관

광주 동구 예술관광 거점 공간 ‘동구 예술여행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 벤처기업 육성 등 새로운 예술관광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동구예술여행센터’가 예술의 거리에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이용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무대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면적 447㎡ 규모로 미로센터 C동 3, 4

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동구예술여행센터는 예술관광벤처 인큐베이팅 공간을 비롯해 강연회,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 여행자 정보검색대 등을 갖췄다.

센터는 앞으로 예술관광 스타트업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행 트렌드 분석, 1인 영상 콘텐츠기획 등 예술여행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수기자

# 광산구, 골목경제 우수사례 대회 대상

## ‘산정길 골목경제협의체 만세프로젝트’ 성과 인정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골목경제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골목경제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9곳(대상 1, 최우수상 4, 우수상 4곳)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운데, 광산구는 지난 14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발표대회에서 ‘산정길 골목경제협의체가 그려낸 만세프로젝트’ 사업으로 가장 높은 대상을 차지했다.

골목경제협의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주민이 답을 찾고 광산구와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가 이를 뒷받침하며 연대와 협업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골목경제협의체 운영 ▲골목상권 만세챌린지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 ▲골목길방역캠페인 ▲안심식당 지정

확대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골목상권 만세챌린지는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6천111명이 참여하면서 1억2천500만원의 매출 증가라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

건기를 통한 면역력 증진,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일거양득 효과와 더불어 시민 만족도도 9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 역시 매출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훈석기자

## 북구,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 개최

광주 북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 북구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생페스타는 북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200여명과 함께하며 전시·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에서 ‘아트나눔 소품전’이 열리며 지역 미술작가 55명의 회화, 도자, 조소 등 160여점의 작품을 관

람할 수 있다.

특히 참여 작가 온라인 인터뷰 및 작품 소개·판매를 위해 전남대학교 LINC+ 학생들과 ‘아트 On Air’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며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북구청’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공연 분야로는 분야별 공연단체와 가수들이 참여해 다음달 6일 국립광주박물관 정원 야외무대에서 ‘뮤직페스타 with 국립광주박물관’과 다음달 13일엔 충효동 왕버들나무 일대에서 ‘가을밤 뮤직페스타’ 등이 열린다.

/조태훈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호젓해서 좋은

## 신안 지도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3, 8, 13, 18, 23, 28일

※ 신안군내시장 : 송도수산시장, 신안젓갈타운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1004 신안군

문의 : 062)650-2099